

임원·대의원 임기 연임 2회로 제한

전주농협, '과다 경쟁으로 선거 이후 사회적 물의 빚어 농협 발전 저해'... 지난달 30일부터 농협 정관 변경·시행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이하 '선출직 임원 등'이라 함)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는 '선출직 임원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각기 해당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 농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이후에는, 과다한 경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농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전주농협 사옥 전경.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의 조합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다.

더 나아가, 임 조합장이 올해 3월 8일에 실시되었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번 선거에 마지막으로 3선에 도전함을 밝히고 본인 스스로 3선 이후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며 3선 조합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 후, 올해 7월 18일에 개최된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위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명의 대의원들이 농협법에 임원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며,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총회 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대의원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농협의 정관 변경은, 농

식품부에서 정한 '정관예'의 범주 안에서만 자체적인 의결이 가능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의결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만약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임시총회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걸 설명하였다.

그 후, 임원 등의 연임 2회 제한이라는 전주농협 임시총회 의결서를 첨부해서, 전주농협 정관 변경 인가요청서를 농협중앙회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던 바, 지난 10월 30일에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후부터 선출되는 임원 등은 임기의 연임 2회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농협이 조합장 이·감사 등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농협 역사에 또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셈이다. /김욱기 기자

LH, ESG 가치창출 위한 세미나 개최

전북 적합 유기적 주거모델 모색... 산·학·연 소통의 장 마련

LH(CEO 이한준)는 사업·업무·국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ESG 경영 추진을 근간으로 ESG 정책 패러다임 변화 대비 및 국민이 체감하고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ESG 가치 창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북지사에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주거와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북지사 본관층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의 주거공간 우수 설계 작품을 전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LH 전북지사에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주거와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박사형 LHRI 책임연구원인 '친환경 주거와 그린리모델링' △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술'(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 탄소중립시대 가능성 친환경 소재, 목재(박희준,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등 3가지 주제 발표 후 산·학·연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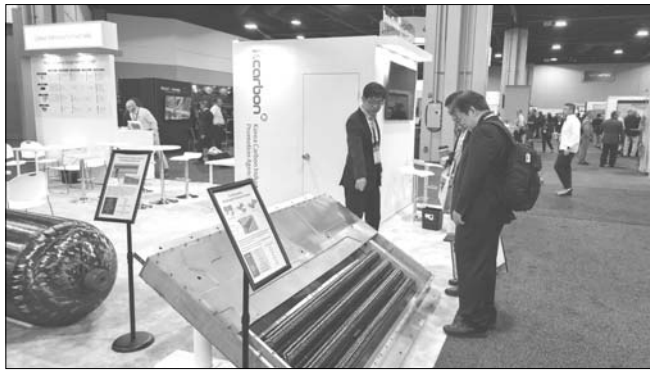
전북대-LH토지주택연구원-LH전북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북대 인국찬 부총장, 주거환경학과 최병숙 교수, LHRI 김홍배 연구원장과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진과 학생들, LH전북 임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산·학·연의 협력의 발판이 되었다. /김욱기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국내 탄소 융복합기술 미국 시장에 선보여

미국 복합소재·첨단소재 전시회 'CAMX 2023' 참가...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용 탄소소재·진흥원 연구성과물 전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운혁)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복합소재 및 첨단소재 전시회(CAMX 2023)에서 한국관을 운영, 대한민국 탄소융복합 기술을 국제 무대에 선보였다.

CAMX 2023은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첨단·복합소재 전문 박람회로, 탄소소재를 비롯해 여러 복합소재, 부품, 장비 뿐만 아니라 자동차, 2차 전지, 수소용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제품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복합소재 및 첨단소재 전시회(CAMX 2023)에서 한국관을 운영, 대한민국 탄소융복합 기술을 국제 무대에 선보였다.

사업화 추진을 함께했다.

'카텍에이지'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생산한 탄소섬유 분말과 부직포 제품을, '비니텍'은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탄소 분리판과 막전극합체 등을 각각 전시했으며,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전시 참가를 계기로 미국 첨단소재기술협회(SAMPE USA) Rebekah Stecha 대표, 미국 복합재 생산자협회 Cindy Squire 대표 등과의 만남을 진행하였으며, 대한민국 탄소소재 산업을 소개하고, 양국간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운혁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탄소 융복합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북대학교 LINC 3.0사업단이 2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지역기업 판로개척 공공구매 상담회

전북대학교 LINC 3.0사업단(단장 송철규·연구부총장)이 2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LINC3.0사업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한국신제품인증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상담회는 15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29개 기술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에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계획 및 주요 사례를 발표하고, 113건 이상의 구매 상담에 참여했다. /정은성기자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인전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세종특별자치시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다.

농진청, '예쁘고 재배 쉬운' 국산 거베라 꽃 평가회 개최

주산지 김해 시범 재배 농가서

회원과 꽃꽂이용으로 사랑받는 꽃, 거베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3일 경남 김해의 국산 거베라 품종 재배 현장에서 새롭게 육성한 계통의 시장성과 기호도 등을 공유하는 평가회를 마련한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평가회에는 재배 농가, 종묘 업체,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한다.

최근 거베라 시장에서는 화환용으로 적합한 큰 꽃(대륜) 외에도 꽃잎이 뽀족한 '스파이더'를 비롯해 뒤틀린 모양의 '파스타', 겹겹이 뽀글게 피는 '폴포니' 등이 유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꽃 지름이 6~8cm인 소형 거베라와 6cm 이하의 초소형 거베라까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품종이 선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유행 경향을 반

영해 개발한 화환용 거베라 대륜형 '원교B-6'와 꽃목 고정 작업이 필요 없는 '원교B-7', '원교B-7' 등 20계통을 소개한다.

'원교B-7'은 꽃이 작고 화환보다는 일상 소비용으로 알맞아 별도의 꽃목 고정 작업 없이 출하할 수 있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유리하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이미 개발해 보급 중인 우수 품종 10점도 함께 소개한다. /김욱기 기자



회원과 꽃꽂이용으로 사랑받고 있는 거베라.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하림, 제주올레걷기축제에 닭한마리 갈국수 등 제품 후원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제주에서 열리는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에서 하림 밀키트를 활용한 점심 먹거리와 피플라스 제품을 증명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약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제주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문화 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이등형 축제다.

하림은 3일 무릉와갯집을 시작으로 용수포구까지 걸어가는 12코스(정방항) 중 산경도에 지점에서 대정읍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지역 식재료와 '닭한마리 갈국수' 제품으로 만든 점심을 선보인다. /익산=이재훈 기자

